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순임*, 김종숙*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e-mail : jongsggg849@gmail.com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Soon-Im Sung*, Jong-Sook Kim*

*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가족·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로 중학교 2학년 1,681명을 분석하였으며, 봉사활동·동아리활동·사제관계·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사회적 자본 요인이 건강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봉사활동과 교사-학생 간 신뢰 관계는 건강 인식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반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과 일부 동아리 활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건강증진 전략 수립에서 사회적 자본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 차원의 다층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인기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로, 가족·학교·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 요인이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건강증진 전략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로, 중학교 2학년 1,68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자본(가족·교사관계, 또래 및 여가활동 등)과 건강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설계에 따라 가중치·총화·집락변수를 고려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Rao-Scott χ^2 검정과 일반선형 회귀 분석(SPSS 29.0, $p < 0.05$)을 통해 요인별 영향을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봉사활동 횟수와 교사-학생 간 신뢰 관계($\beta = .453$, $p = .037$ / $\beta = .940$, $p = .001$), 목적이 있는 컴퓨터 사용은($\beta = .415$, $p = .050$ 일부 분석).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인식을 유의하게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동아리 활동 횟수($\beta = -.262$, $p = .036$) 휴대전화는 사용 시간이 길수록 건강 인식이 낮은 부정적 영향($\beta = -.415$, $p = .012$)을

보였다.

4. 논의 및 결론

이상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차원의 다층적 개입을 시사하며,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동아리 활동의 질적 개선,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이 지원돼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질적 양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송희 (2022). 중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789–805.
- [2]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 [3]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0S1A5C2A04092504)